

BIFAN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시네마 2018.07.20
NO.9

BIFAN과 함께
소름끼치게 즐거웠고

FEATURE 한국독립영화의 역사, 인디스토리 20년
INTERVIEW <호랑이는 겁이 없지> 감독 이사 로페즈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최고의 선택

고객의 성공이 바로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을 DHL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220여 개 국가에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DHL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탁월한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돕는 최고의 물류 파트너가 되기 위해 국제특송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전 세계 10만 명의 DHL EXPRESS 직원들이 고객님의 과와 함께 합니다.

dhl.co.kr/express



BEYOND AUTO. BAVARIAN MOTORS.

MINI 공식 딜러 바바리안 모터스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공식 후원 합니다.
바바리안 모터스에서 새로워진 디자인의 THE NEW MINI도 만나보시고, 자동차, 그 이상의 가치를 경험해 보세요.

BLOG.NAVER.COM/MINIBV

MINI 부천
Tel. 032.285.4600

MINI 목동
Tel. 02.2646.4600

MINI 송도 Complex
Tel. 032.213.4600

MINI 인천
Tel. 032.236.4600

MINI 일산
Tel. 031.8076.4600

MINI 스타필드 고양
Tel. 02.6932.4600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차종명 : MINI COOPER S 3DOOR (자동 6단 스포츠 변속기/배기: 1,998/공차중량: 1,280kg)

복합연비 : 12.6km/L (도심연비/고속도로연비: 11.3/14.9Km/L) 등급: 3 / 복합CO2배출량: 134g/km

* 해당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위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 V E N T

- 10:00 ~ 20:00
포스터 피규어 전시
부천시청 2층
- 10:00 ~ 20:00
인디라운지
그리고 인디스토리 20주년 전시
부천시의회 1층 갤러리
- 10:00 ~ 20:00
전시로 만나는 스타,
배우, 아티스트 정우성
부천시의회 1층 갤러리
- 10:00 ~ 20:00
BIFAN VR 빌리지
부천시청 중앙공원
- 14:00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 남북영화
판타스틱큐브
- 18:00
폐막식 레드카펫
부천시청 어울마당
- 19:00
폐막식 및 폐막작
(시크릿 슈퍼스타) 상영
부천시청 어울마당

표지 감독 이사 로페즈
사진 오계옥

S T A F F

- 발행인 배경록
- 편집장 주성철
- 취재팀장 이화정
- 취재 이주현 김현수 김소미
- 객원기자 김정현
- 사진 오계옥
- 사진객원 박종덕
- 디자인 김윤희 권지혜
- 제작총괄 심은하
- 제작 이준용
- 인쇄 (주)성전기획
- 부천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판타스틱오피스 (부천시청 별관)
전화 032-327-6313
- 씨네21 데일리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3층
어울마당 데일리 사무국
- 씨네21 주식회사 www.cine21.com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11
SK V1센터 E동 1102호
전화 02-6377-0500

BIFAN board



내년에 또 만나요!

영화제 기간 동안 활약한 자원활동가들이 관객에게 인사를 전했다. 곳곳에서 발로 뛰었던 이들이야말로 축제 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다. 제2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20일(금) 열린 폐막식을 앞두고 있다.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다카하시 히로시, 공포에 대해 말하다

“현실에 있을 수 없는 것을 영상화 하는 것이 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19일(목) 오후 5시 CGV소풍 2관에서 ‘J호러의 크리에이터, 다카하시 히로시’라는 주제로 마스터클래스가 열렸다. <오컬트 불세비즘> 상영 뒤에 이어진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다카하시 히로시 감독이 참석해 자신의 영화는 물론 서양과 일본에서의 공포영화, 최근 공포영화의 경향에 대한 의견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줬다. 특히, 다카하시 히로시 감독은 나가다 히데오 감독과 함께 작업한 <링>(1998)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링>의 작업과정을 설명한 그는 미국에서 만 들어진 고어 버빈스키 감독의 <링>(2002)이 “논리에 집중하여 리메이크를 했다”며 “현실에 있을 수 없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J호러와는 많이 달랐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공포를 일상의 연장에서 표현”한 J호러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며 <링>과 J호러가 많은 관객에게 공포를 선사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현 객원기자



모든 게스트를 지인처럼

우 남 이

초청팀 게스트 코디네이터

어떤 게스트들을 담당하는가.

미주와 유럽 지역 게스트 중 주로 상영작 초청으로 참석하는 게스트들을 담당하고 있다.

게스트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만나기 전부터 계속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영화제에서 처음 만나도 오래된 지인 같이 느껴진다. 특히 이번 게스트 중에는 영화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 힘들지 않았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게스트가 있다.

<키블에 헤비메탈을>의 트레이비스 비어드 감독과 <안나와 종말의 날>의 존 맥메일 감독이 많이 챙겨줬다. 하루는 사무실에 맥주도 가져다줬다. 물론 업무 때문에 마시지는 못했지만. (웃음)
글 김정현 객원기자 ·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말.말.말.

“일단 섭외가 들어와야...”

→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5 GV에서 <김녕화관>에 출연한 방송인 알베르도 몬디. 연기는 처음인데, 배우 활동을 계속 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괜히 봤다고 후회할 만큼 무서운 영화를 만들려고 했다.”

→ 마스터클래스에서 감독 다카하시 히로시. 관객이 영화가 끝난 후에도 공포심을 느끼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가난한 감독들이 모여 영화를 찍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인 목소리다.”

→ ‘부흥! 라틴 장르 영화!’ 메가트크에서 <카니발 클럽> 감독 구토 파렌테. 시스템에 구애받지 않는 영화를 만드는 이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북교류의 물꼬를 틔다



<우리집 이야기>

스크린 너머 북한의 현재를 가능하고, 남북문화 교류의 활로를 모색하는 포럼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 남북영화’가 20일(금) 오후2시 부천시청 1층 판타스틱큐브 상영관에서 열린다. 북

한과 일본을 오가며 <하늘색 심포니> 등의 영화를 만들어 온 재일동포 박영이 감독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15일 열린 북한영화 <우리집 이야기> 공개 상영에서 무대에 올랐던 전영선 건국대학교 연구교수 외 2인이 발제를 맡고, 조은성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PD를 포함한 3인의 토론자가 참석해 올해 BIFAN의 북한영화 특별상영과 남북 영화의 차이점 및 소통 방향을 논할 예정이다.

11일 간의 BIFAN 20일 막 내린다



지난 해 ‘부천 초이스: 장편 부문’ 수상자들.

제22회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가 20일(금) 오후7시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리는 폐막식을 끝으로 11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KBS 최동석 · 박은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폐

막식에서는 ‘부천 초이스: 장, 단편’과 ‘코리안 판타스틱: 장, 단편’ 등 경쟁 부문의 시상식이 함께 이루어진다. 올해 폐막작은 인도 영화 <시크릿 슈퍼스타>(감독 애드바이트 찬단다). 가수가 되길 원하는 소녀 인시아가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반대를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이야기로, 발리우드의 스타 아미르 칸이 소녀를 돕는 조력자로 등장한다. 레드카펫 행사는 오후 6시부터 시작된다.

이제 개봉관에서 BIFAN해!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BIFAN의 화제작을 극장에서도 만날 수 있다. 7월 19일(목) 개봉한 <행복의 나라>(배급 인디스토리), <맘&대드>(수입 아펙스, 배급 박수엔터테

인먼트)에 이어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영화 제명 <원 컷 오브 더 데드> 수입 · 배급 디오시네마)가 8월 23일, <대관람차>(배급 무브먼트)가 8월 30일 개봉 예정. <리벤지>(수입 컴퍼니엘), <델마>(수입 그린라미디어) 역시 8월 개봉 예정이며, 그 밖에 <다이너마이트 스캔들>(수입 미디어캐슬), <시크릿 슈퍼스타>(수입 미로), <고독한 늑대의 피>, <최저>, <벼룩잡는 사무라이>, <빙과>, <방화>, <작년 겨울, 너와 이별>, <요요전: 레전드 오브 더 데몬 캣>, <불량가족, 행복의 맛> 등의 영화가 수입 확정됐다.

Interview

기예르모 델 토토 감독님,
이래도 안 볼 테야?

〈호랑이는 겁이 없지〉 이사 로페즈 감독

“가장 라틴 아메리카적인 것, 마술적 리얼리즘이 내 영화에도 있다.”
〈호랑이는 겁이 없지〉는 마약조직에 의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직접 복수에 나서는 호러 판타지 영화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밀어붙인 감독의 독심 덕분에 동화적인 상상력과 장르적인 요소가 호기롭게 만난 독특한 작품이 탄생했다.



멕시코의 마약 전쟁을 배경으로 시나리오를 쓰게 된 계기는, 원래 할리우드에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생긴 마약 카르텔의 이야기를 준비 중이었다가 프로젝트가 성사되지 못하고 조국으로 돌아왔다. 전쟁과 마약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다루고 싶다는 생각이 〈호랑이는 겁이 없지〉로 이어졌다.

문제적 현실을 리얼리즘이 아니라 호러, 판타지 장르의 장치를 빌려 표현했다. 현실을 영화적인 장치로 여과시켜 보여주는 것은 필름메이커의 의무 중 하나다. 라틴아메리카의 마약 전쟁은 그동안 호러나 판타지 장르로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다. 그러나 실상을 한번 접하고 나면 이미 그 자체가 호러임을 알게 될 거다.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등장하고, 현실과 그 경계 너머의 세계가 합쳐지는 이야기는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아이들의 순진한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미장센들이 인상적이었다. 〈피터팬〉(1953), 〈구니스〉(1985), 〈스탠 바이 미〉(1986) 등 어릴 적부터 아이들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장르물의 팬이었다. 아이들은 판타지를 진심으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이다. 특히 주인공 소녀인 에스텔라는 〈피터팬〉에서 처음으로 에버랜드를 경험한 웬디와 비슷한 과정을 겪길 바랐다.

에스텔라가 기원하는 세 가지 소원, 용과 호랑이 등 영화에 사용된 동화적 소재들은 한국에서도 매우 익숙한 것들이다.

바로 그거다. 전 세계 모든 문화에 스며들 수 있는 원형을 찾으려 했다.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했는데,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중요한 상징들을 배웠다. 영화 속에서 엄마의 유령이 복수를 지시하는 것 역시 일부러 멕시코의 〈햄릿〉을 의도한 결과가 아니었다. 그만큼 햄릿의 서사가 원형에 가깝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영화를 본 기예르모 델 토토 감독의 연락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화제다.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나.

현재 준비 중이다. 사실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그에게 프로듀싱을 부탁하고 싶었는데 접근이 불가능했다. 같은 멕시코 영화인이어서 연락하기 쉬울 거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웃음) 그런데 몇몇 영화제 상영 후, 트위터에서 내 영화를 기예르모의 것과 비교하는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힘입어 “기예르모, 이래도 내 영화 안 볼 거야?”라면서 직접 그에게 도발적인 멘션을 보냈고,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

차기작 계획을 들려준다면.

이번과는 완전히 다른, 코미디영화를 준비중이다. 또 하나는 기예르모와 준비 중인 작품으로 암울한 다크 판타지가 될 것 같다. 기회가 된다면 초능력자가 등장하는 호러영화도 찍고 싶다.

글 김소미 · 사진 오계욱

People



정연주, 송강(왼쪽부터).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뱀파이어 〈뷰티풀 뱀파이어〉 배우 정연주, 송강

온라인에서 공개 후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웹드라마 〈뷰티풀 뱀파이어〉가 극장판으로 BIFAN을 찾았다. 뱀파이어 분장사 란과 배우 지방생 소년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그린 〈뷰티풀 뱀파이어〉는 긴 시간을 관통해 재회한 연인의 애뜻함마저 웹드라마다운 코미디 감각으로 풀어냈다. “큰 스크린으로 나를 보는 느낌은 언제나 새롭다”는 배우 정연주는 한 작품이 영화와 웹드라마를 오가는 최근 플랫폼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배우 송강은 “큰 화면으로 보니 작은 표정의 어색함까지 다 보이더라”고 스크린 데뷔의 소감을 드러냈다. 정연주에게 란은 “코미디 장르를 주연으로서 이끄는 여성 캐릭터”이기에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뱀파이어지만 급격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분장실 월세가 오르자 찢찢 매는 모습에 인간보다도 더 공감이 간다. 함께 호흡을 맞추며 “서로 많이 배웠다”는 두 사람. “내게 없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정연주의 칭찬에 송강은 “연주 선배의 자연스럽게 편안한 느낌이 부럽다”고 받아들였다. “진짜 내 것처럼 느껴야” 좋은 코미디가 나온다는 게 정연주가 동료에게 전한 비결이었다. 김소미 ·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여성 액션의
새로운 경지에 도달한다 〈슬림가 대승격〉 배우 앤 커티스

〈슬림가 대승격〉은 슬림가의 마약 갱단을 소탕하는 특수부대원 마니간 역을 맡은 배우 앤 커티스의 표현처럼 “액션으로 꼭 찬 영화”다. 상영시간 대부분을 마니간과 특수부대원들의 액션으로 채운다. 아역배우를 시작으로 21년 동안 주로 로맨스 영화에 출연하면서 한 번도 액션 연기를 해보지 않았던 그에게는 큰 도전이었다. 하지만 “운명적인 부름을 받지 못해” 쉬고 있던 그는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받자마자 망설임 없이 출연을 결정했다. 액션 연기가 주가 되다보니 촬영에 앞서 6개월간의 강도 높은 훈련과 험난한 촬영과정을 겪어야 했다. 무려 2년 동안 로케이션 촬영을 했고 심지어 밤에만 촬영해야 했다. 고생을 하면 할수록 연기에 대한 의지가 살아났다. 거듭되는 실패로 원하는 롱테이크 씬을 포기하지는 에릭 마티 감독을 격려한 것도 그였다. 마니간이 지붕 위를 오르 내리며 갱단과 대적하는 3분 간의 롱테이크 액션 씬은 3일 동안 57번의 테이크를 소화한 끝에 탄생한 명장면이다. “여성이 이끄는 액션 영화가 드문데 내가 그 역할을 맡게 되어 행복했다”는 그는, 이제 또 다른 운명적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 글 김정현 객원기자 ·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등급 Rates © 전체 관람가 General ©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 청소년 관람 불가 Under 19 not admitted
 상영관 Theaters CH 부천시청 어울마당 FC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 LS 부천시청 잔디광장 BU3 CGV부천 3관 BU4 CGV부천 4관 BU5 CGV부천 5관 BU6 CGV부천 6관 BU7 CGV부천 7관 BU8 CGV부천 8관
 S02 CGV소풍 2관 S03 CGV소풍 3관 S04 CGV소풍 4관 S05 CGV소풍 5관 S06 CGV소풍 6관 MM 한국문화박물관 SS 송내술안이트홀



시크릿 슈퍼스타

Secret Superstar

애드바이트 찬단 | 인도 | 2017 | 150분 | 폐막작
 7.20 CH 19:00 | 7.21 CH 19:00



올해 BIFAN의 폐막작은 인도의 국민배우 아미르 칸이 제작과 출연을 겸한 <시크릿 슈퍼스타>다. 열다섯살의 소녀 인시아(자이라 와십)는 가수 꿈이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목소리와 노래 실력도 지녔다. 하지만 집안의 왕으로 군림하는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그 꿈을 발설할 수조차 없다. 어머니는 딸의 꿈을 응원하면서도 현실의 한계와 순

응해야 할 운명을 일깨운다. 현실에 굴하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꿈을 이루려는 인시아는 유튜브에 자작곡 영상을 올린다. 부르카를 쓰고 '시크릿 슈퍼스타'라는 이름으로 올린 인시아의 노래하는 영상은 금세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다. 한물 간 가수이자 프로듀서인 샷티 쿠마르(아미르 칸)도 인시아에게 노래를 녹음하자고 제안한다. 똑똑한 인시아는 쿠마르를 이용해 자신의 꿈도 이루고 폭력적 상황으로부터 어머니를 구할 계획을 세운다. 특별한 재능을 지닌 평범한 소녀가 일약 스타가 되는 이야기인가 싶지만, 영화는 인시아의 성공신화 그 자체엔 별 관심이 없다. 2시간 30분의 러닝타임 동안 영화가 집요하게 주시하는 건 인시아의 집안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양상이다.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엄마와 꿈을 좇으며 살겠다고 소리치는 인시아. 두 소녀의 관계는 인도 내부의 이야기로만 보이지 않는다. 모녀가 보여주는 뭉클한 감동에 웃음을 더하는 건 아미르 칸의 능청스러운 연기다. <세 열간이>(2011), <당갈>(2017) 등으로 국내에도 많은 팬을 거느린 아미르 칸의 춤과 노래가 엔딩 크레딧 중간에 이어지니, 영화가 끝났다고 서둘러 자리를 뜨지 말자. 이주현



<한여름의 판타지아>



<유쾌한 도우미>

지금처럼, 한국 독립영화를 부탁해

인디스토리 20주년 특별상영, 갓 스물! 판타스틱 전격질주

올해 BIFAN은 인디스토리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인디스토리 20주년 특별상영, 갓 스물! 판타스틱 전격질주'를 마련했다. 독립영화 제작·배급사 인디스토리가 문을 연 건 1998년 11월. 인디스토리는 20년 동안 한결같이 한국의 독립영화가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발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다. 11월이 다가오기 전에 좀 더 많은 이들이 인디스토리의 20주년을 축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BIFAN이 준비한 특별상영이 바로 '갓 스물! 판타스틱 전격질주'다. 최용배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인디스토리가 제작·배급한 영화들이 워낙 많다. BIFAN과 어울리는 판타스틱 영화들도 은근히 많았다"며 특별전을 마련한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특별상영 작품은 5편의 장편과 14편의 단편. 장편은 장건재 감독의 <한여름의 판타지아>(2014), 오영두, 류훈, 영건, 장윤정 감독의 <이웃집 좀비>(2009), 이대희 감독의 <파닥파닥>(2012), 백승화 감독의 <반드시 크게 들을 것>(2010), 김병우 감독의 <리튼>(2007) 이상 5편이다. 기발한 상상력으로 저예산 장르영화의 한계를 돌파한 좀비영화 <이웃집 좀비>는 2009년 BIFAN에서 심사위원 특별상과 관객상을 수상했고 <건기왕>(2016) <오목 소녀>(2018)의 백승화 감독이 만든 음악 다큐멘터리 <반드시 크게 들을 것>

은 2009년 BIFAN에서 후지필름 이터나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긴장감 넘치는 추격전이 인상적인 <리튼>은 김병우 감독이 <더 테러 라이브>(2013)를 만들기 전에 찍은 저예산 장편영화로, <더 테러 라이브>의 탄생을 예고하는 작품이다. 참고로 김병우 감독의 <더 테러 라이브>는 2013년 BIFAN의 폐막작이었다. '한여름의 장르영화 판타지아'를 표방하는 BIFAN과 석잘 어울리는 <한여름의 판타지아>,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의 저력을 보여준 고등어의 수족관 탈출기 <파닥파닥>도 이 계절에 어울리는 작품이다. 인디스토리가 발굴한 재능 있는 감독 및 배우들의 초창기 단편을 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해적: 바다로 간 산적>(2014), <히말라야>(2015)를 만든 이석훈 감독의 단편 <포 더 피스 오브 올 맨카인드>(1999)를 비롯해 배우 정유미와 김중관 감독의 시작을 확인할 수 있는 <플라로이드 작동법>(2004), 배우 김태희가 신인 시절 출연한 홍두헌 감독의 <신 도시인>(2002), 도시에 사는 여성의 이야기를 풍부한 상징과 유머로 풀어낸 박지연 감독의 애니메이션 <도시에서 그녀가 피할 수 없는 것들>(2008), 장형윤 감독의 따스한 감성을 느낄 수 애니메이션 <아빠가 필요해>(2005), 판타지 영화에 대한 감독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민동현 감독의 <외계의 제19호 계획>(2001) 등 인디스토리의 전기 10년을 정리하는 단편들도 소개되었다. 배우이자 감독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구혜선과 유지태의 단편 연출작도 상영되었다. 감독 구혜선의 시작을 알린 <유쾌한 도우미>(2012)와 최근작 <미스터리 핑크>(2018), 감독 유지태의 실험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나도 모르게>(2007)와 <초대>(2009)도 이번 특별상영의 관심작이었다. 15일(일)인 인디스토리 20주년을 기념하는 메가토크 '한국독립영화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가 열렸다. 인디스토리와 연을 맺어온 장건재, 백승화, 백재호, 유지영 감독이 참석해 "한국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배급사" 인디스토리의 꾸준한 행보를 응원했다. 한편 부천 시의회 갤러리 1층에는 22일(일)까지 인디스토리 20주년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인디라운지 그리고 인디스토리 20주년 전시'가 마련되어 있다. 이주현

BIFAN sketch

BIFAN 숨은 스타를 찾아라!

관객과 영화인이 함께 만든 11일 간의 축제 스케치

정말 뜨거운 영화제였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경보 속에도 굴하지 않고 영화제를 즐기던 관객들, 그리고 전세계 장르를 책임지는 영화인들. 함께 만들어낸 축제, 영화와 함께 한 11일 간의 여정을 기록했다. "BIFAN을 멈추면 안 돼!"

사진 오계옥 · 박종덕 객원기자, 글 김정현 객원기자



← "굿즈의 승배자" 봤으면 사야 한다. 매진의 공포가 두려워 모두가 오픈 시간에 맞춰 달려들었던 '팬다h틱 플래마켓' 현장.



↑ "셀카의 문이 열린다" 19일(목) <밤의 문이 열린다> 상영 후 열린 GV에서 관객들과 함께 포즈를 취한 이승찬 배우, 유은정 감독, 한해인 배우, 감소민 배우(왼쪽부터).



↑ "BIFAN의 밤에 정우성의 후광을 장식하자" 흑시 인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증명이나 하듯, 12일(목) 개막식장에서 우연히 포착한, 그 자체로 장르가 된 배우의 강렬함.



← "성스러운 것" 진정한 BIFAN 홀릭들을 위한 꿈의 이벤트. '스탬프 이벤트'가 영화제 기간 내내 관객들의 발길과 마음을 사로잡았다.

↓ "원컷 오브 더 코스프레" 뼈빠용인가, 프레디 크루거인가. 부천시청 1층 로비를 장식했던 호러 아이콘 마네킹들과 셀카 찍는 관객들.



↓ "선물을 부르는 얼굴" 16일(월)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 <귀신은천여관> GV에서 배우 장팅후, 감독 린관후이(왼쪽부터), 팬들의 선물에 한국말 인사 "감사합니다."로 화답했다.



↑ "VR+영화" 이것이 영화의 미래군. 부천 중앙공원 VR 빌리지에 마련된 'Odyssey VR CINEMA' 부스 풍경.

← "불한당원 대승격!" 설경구의 몸짓 하나에 모두가 하나 되어 반응했던 날. 15일(일) 한국만화박물관에서 <불한당> 상영 후 열린 GV현장에서.

FEATURE

BIFAN, Encore!



Secret Superstar

Time in Korea often seems to pass more quickly than elsewhere, yet in the case of BIFAN it is practically supersonic. While it may feel like yesterday that the opening ceremony took place, a staggering 290 films, project markets, special events, mega talks and much more have all taken place, with each day entertaining genre enthusiasts and witnessing the forging of new relationships with industry professionals. BIFAN 2018 has also seen an incredible number of sold out screenings and record ticket sales, reaffirming that the demand for the genre film experience is stronger than ever.

The Closing Ceremony will take place tonight at Bucheon City Hall's Main Theater, where following a red carpet event and announcement of awards, closing film *Secret Superstar* will be screened. The Indian production is the feature debut of writer/director Advait CHANDAN, who tells the coming-of-age tale of teenager Insia and her desire to become a singer. While her mother is supportive, Insia's deeply conservative father

vehemently disagrees with her chosen vocation, resorting to violence to maintain his patriarchal authority over the family. Yet when a video of Insia's singing goes viral, tension within the family escalates even further. *Secret Superstar* is a fitting film to close BIFAN 2018. The story of a talented underdog fighting for recognition and to achieve their aspirations is exactly what genre filmmakers face as they battle to have their unique vision(s) on the big screen. Succeed they do - and BIFAN is the place to witness it happen. Onward to BIFAN 2019!

BIFAN Rush

Good news! BIFAN 2018 will not finish tonight - as part of an encore screening for audiences called BIFAN Rush, films will continue to be screened throughout Saturday 21st and Sunday 22nd. Many of the biggest titles from the festival will be playing again for audiences, including competition films, family friendly movies, Best of Asia titles, hardcore genre pieces as well as horror and sci-fi classics.

Also interspersed during the weekend schedule will be four 'Awarded Title' screenings, which are based on the films that win the big prizes at BIFAN. It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cinema-goers to appreciate the highly acclaimed and most popular movies from the festival, the results of which will be announced at the Closing Ceremony tonight. Furthermore, four 'Surprise Screening' events will take place over the weekend. The first to be announced was Korean film *A Bad Hair Day* by director KIM Jong-kwan and starring HAN Ye-ri. Bollywood action film *Jai Lava Kusa* by director K. S. RAVINDRA, and blockbuster Indian movie *Tiger is Alive* by director Ali Abbas ZAFAR were revealed as the second and third special screenings, respectively. The fourth film is yet to be announced. For audiences too busy to join the festival during the week, BIFAN Rush is a wonderful opportunity for cineastes to come and join the BIFAN experience. Simon McEnteggart

REVIEW

Buy Bust

Erik MATTI | Philippines | 2017 | 128min | World Fantastic 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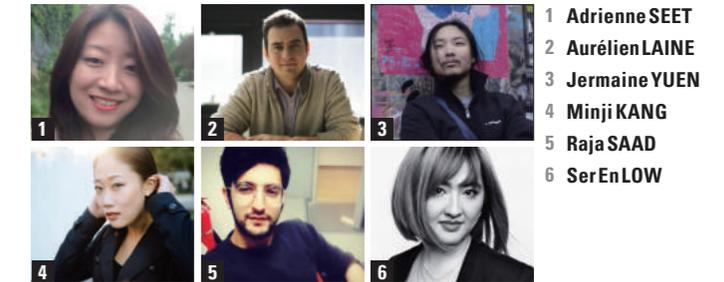
Filipino action blockbuster *Buy Bust* is an explosive high-octane piece of cinema from director Erik MATTI. Expertly using the labyrinthian shanty towns for taught thrills and featuring fantastic stunt choreography in the creation of ultra-violence, *Buy Bust* offers scathing commentary on the current 'war on drugs' in The Philippines and is a must-see for action genre fans.

When the Philippine Drug Enforcement Agency's elite squad receives a tip-off that crime boss Biggie Chen is hiding out in a nearby slum, the team assembles and prepare to take him out. Winding through the maze of paths they finally locate Chen's base - and everything suddenly goes horribly wrong. The team must fight to survive as they are hunted by gun-toting gangsters, knife-wielding maniacs, and even the citizens themselves, as they battle to escape the slum.

The film wastes little time getting into the heart of the action, as the elite squad are quickly introduced and thrown into peril. The cinematography, camerawork, production design et al are superbly executed throughout the slum sequences, ramping up the oppressive and claustrophobic atmosphere to effectively convey the severity of the situation. While characterisation is in short supply, Anne CURTIS makes a great transition into the action genre and is a compelling lead who throws herself into the midst of battle with conviction, while MMA Brandon VERA has potentially crafted a new career for himself as a Dwayne Johnson-esque powerhouse who dispatches the opposition with hilarious ease.

While a solid action-fest for much of the running time, *Buy Bust* truly stands out during the final act in which the events become a commentary on the deadly political climate in The Philippines, leading to a stellar finale that leaves a lasting impression. Simon McEnteggart

INTERVIEW



- 1 Adrienne SEET
- 2 Aurélien LAINE
- 3 Jermaine YUEN
- 4 Minji KANG
- 5 Raja SAAD
- 6 SerEn LOW

Fantastic Film School Alumni 2018

"I feel honoured to have met talented people who are passionate about their craft." ➔ Adrienne SEET is a filmmaker/entrepreneur based in Norway. She's developing fantasy thriller *Thin Ice* about psychological violence.

"The people organizing it and those participating are the friendliest people I know and the most dedicated in enabling attendees' success." ➔ Aurélien LAINE is a French screenwriter based in Seoul, currently writing for a Korea/UK produced animated TV show.

"The mentors were incredibly insightful, I was able to meet amazing people, the hospitality was superb, and the parties are the best."

➔ Jermaine YUEN is an Australian filmmaker whose dark fantasy film *Abyss* went to multiple festivals. He also works as a production designer.

"I found FFS a transformative platform for emerging filmmakers, very sensational. Thank you BiFan!" ➔ Minji KANG is a writer/director working in Los Angeles and Seoul. She is currently developing upcoming feature film *Illicit*, a haunting family thriller.

"Not just because we learnt a lot from our instructors but I really enjoyed all the networking events and pitch sessions."

➔ Raja SAAD is the first Pakistani to attend FFS. He wants to promote the Pakistan film industry for future co-productions.

"FFS is really fun. I met producers and directors from different countries who are at the same stage of their careers as me."

➔ Ser En LOW is a BAFTA-winning Singaporean producer. She works as an associate producer at mm2 Entertainment. Simon McEnteggart

the Beer of Barcelona



1876
Estrella
TRADICIÓN Damm CERVEZAS
BARCELONA
CERVEZA MEDITERRANEA
DE MALTA Y ARROZ